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62 색채와 생활

유도와 태권도 최고 단계는 '검은 띠'

●색채와 복잡
1974년 이인자 교수는 그의 논문인 「성격과 의상 디자인 선호 간의 상관 연구, 1974.」에서 입을 옷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을 때는 검은 색 옷들을 가장 많이 입으며, 특히 몸에 딱 달라붙거나 허리띠를 꼭 조이는 옷들이 눈에 많이 띈 때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2013년 영국의 일간 데일리메일은 한 업체가 '첫 데이트 할 때 호감 있는 옷 색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여성은 빨간색 옷, 남성은 회색 옷을 입었을 때 커플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 여성은 빨간색 옷 다음으로 파랑, 초록, 검정, 보라의 순이었다. 남성은 회색 옷 다음으로 검정, 파랑, 초록, 하양의 순이었다.

호감을 얻지 못하는 색의 옷으로는 남녀 모두가 노랑을 꼽았다. 특히 여성은 갈색 옷을, 남성은 핑크색 옷을

입었을 때 호감을 얻지 못했다. 검은색 옷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차단 효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은색 옷은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함께 열도 흡수해 옷이 뜨거워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월리스(Wallis, W. Allen)는 물체가 확대되어 보이는 것을 연구하였는데, 노랑은 색채 중에서 물체가 가장 크게 보인다. 왜냐하면, 이 색은 명도가 높아서 확장되어 보이고, 반대로 검은색은 명도가 낮아 가장 작게 보이기 때문이다.

●색채와 숫자
공학 분야에서는 수치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색을 상징적 언어로 사용하였는데, 검정은 0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정적이었던 검은색은 하안색과 결합한 인쇄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얻었으며, 빨간색보다는 더 낮게 나타났다. 적자는 '빨간 숫자'로, 흑자는 '검은 숫자'로 기록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품계에 따라 상징색이 달랐으며, 승려는 검은색이다.

1952년 국제유도연맹(International Judo Federation)에서는 선수 수준에 따라 허리에 매는 색 띠 7가지를 채택하였다. 최고 단은 검정 띠이지만, 1단부터 10단까지 다시 세분화시켰다.

일본에서는 6단-8단은 빨간 띠와 하얀 띠, 9단-10단은 빨간 띠로 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2가지로 세분화시켰다.

우리나라의 태권도는 각도장마다 선수 수준에 따라 허리에 매는 색의 띠가 조금씩 다르고, 초등부와 중·고·일반부가 나누어져 있다. 태권도의 등급별 색채는 크게 5가지(빨강, 파랑, 초록, 노랑, 하양을 말함)로 분류했다. 검은색은 1단 이상을 의미한다.

운동경기 시상식에서 빨간색 리본은 2등 상을 상징한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세계 주목 K-원전 재도약 기회

기고

이윤희
전북대 양자시스템
공학과 교수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여 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소식이 근래 유럽에서 들려왔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체코 정부에 직접 항의했다는 내용으로 체코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는 하지만 무한 경쟁 시대의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원전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970년대 원전을 도입한 이래로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설하면서 축적된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역량과 운영 실력을 보유하게 됐고 'UAE 원전 수출'(2009년)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미국), EDF(프랑스) 등 유수 세계 원전기업에서 견제가 심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전 세계는 폭염, 가뭄, 홍수 등 심각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했다.

NDC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조약인 파리 협정의 일환으로 개별 국가들이 세운 탄소 감축 목표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만으로는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원은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간헐성(해가 떠있을 때, 바람이 불 때만 전기

를 생산할 수 있음), 대용량 저장 장치 부재, 전력의 불안정성,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단가 등의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용량의 에너지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전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은 일찌감치 EU 탄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원자력을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에너지로 포함 시켰고,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원전 확대를 선언했다.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전환했고 탈원전의 대표주자였던 독일도 러시아 천연가스 송유관 문제, 전기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책 전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체코원전 수주를 통해 유럽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재일우(千載一遇)다. 수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필요로 할 때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 소수에 불과하며 이 중에 우리나라는 건설공기를 적기에 맞출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운영 중인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하고 신규 원전도 필요한 경우 추가로 건설함으로써 계속해서 원전 건설 및 운영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영허가기간 만료에 도달하는 원전도 '계속운전'해야 한다. 계속운전은 운영허가 기간 만료에 도달한 원전이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도 구조물과 용기, 배관과 같은 피동형기기(외부의 구동력 없이 중력, 온도·농도·압력차 등 자연 현상에 의해 작동하는 기기)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능동형 기기들의 적절한 관리 및 교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해 규제기관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전제하에 경제성이 확보되면 운영변경허가를 받아 운전 계속하는 것의 의

미한다.

계속운전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원전을 운영하게 된다면 전력수요량을 대체할 신규 원전을 건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기존 원전을 통해 전력을 계속 생산할 수 있어 더욱더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해외 현황을 보면 운영허가기간 만료에 도달한 원전 267기 중 244기가 세계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이 수행한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고 최근 고리2·3·4호기 한울1·2호기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상기 원전들의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허가변경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K-원전이 타 발전원 대비 더욱더 우수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까지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 전 세계가 우리 K-원전을 더욱더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남 지역에 위치한 한빛1·2호기는 각각 2025년, 2026년에 운영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빛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절차 중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공청회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민주적인 절차이다.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는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원전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우리 지역 원전의 투명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참여 및 의견 개진이 필요할 때이다.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감동의 패럴림픽' 한국 메달 19개 획득



아이폰 '한국어 통화녹음' 지원

파리 패럴림픽이 반환점을 돌았다. 한국은 보치아 10연패 달성, 사격, 탁구의 메달 레이스로 4일 기준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며 메달 순위 14위에 올랐다. 이는 목표했던 메달 순위 20위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특히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올림픽 양궁에 이어 패럴림픽 효자 종목으로 이름을 떨친 보치아는 빨간색 볼과 파란색 볼을 흰색 표적구에 가까이 던지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종목으로 '땅 위의 컬링'이라고도 불린다.

애플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에 한국어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를 지원한다. 애플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는 말 그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통화 내용을 요약 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최근 배포한 개발자 대상 'iOS 18.1 베타'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애플 인텔리전스 정식 버전 출시는 아이폰16 시리즈 공개 이후 약 한 달 뒤인 10월로 관측된다.



"영끌 멈춰!" 은행권 '주담대'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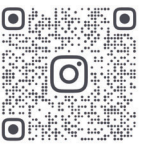
더 선명해진 '사건의 지평선'

서울 집값이 23주째 상승한 가운데,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집값 상승 막차에 오르려는 '영끌족'이 재등장 하며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달과 비교해 9조6259억원 늘었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0년 11월 가계대출 증가폭(9조4195억원)보다 많다. 은행권은 주담대 증가세를 막고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고자 대출 자체를 멈춘다. 국민은행은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중단했다.

블랙홀 영상을 포착하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ETH)'이 지구로부터 5400만 광년 떨어진 초질량 블랙홀을 사상 최고 해상도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ETH 협력단은 ETH 관측 전파를 345GHz 확장, 기존보다 50% 높은 해상도로 블랙홀을 관측했다. 이번 관측을 통해 블랙홀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져 생긴 밝은 고리가 흐릿하게 포착됐다. 협력단은 초질량 블랙홀 경계의 가스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블랙홀이 어떻게 물질을 끌어당기고 축적하는지, 어떻게 강력한 제트를 발사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전동킥보드!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발언대

임용택
광주 광안경찰 교통과
교통안전계 계사



전동킥보드는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부딪혀 사망했고, 남구 봉선동에서도 휴가를 나온 20대 군장병이 통근버스에 충돌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사고도 있었다. 이들 운전자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수칙들이 있다.

첫째는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자동차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면허없는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운전면허 등록 절차 없이 대여가 가능해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둘째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고 충돌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안전모의 착용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셋째는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과속과 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간시간이나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시야확보가 안된 장소를 통과할 때는 충분히 감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으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로 통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사고위험이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전동킥보드 사용시 안전 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주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를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하겠다.